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0월 25일(금)
... (음력 9월27일) ...

Пятница
25 октября 2019г.
№ 42(11685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요즘 김장철이 한창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에서.

(이예식기자 촬영)

건강 검진을 위한 추가 이동진료차 운행

마카로브, 네웬스크, 티뎀스 코예, 코르사코브, 홀스크, 토마리 구역에서는 건강 검진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주 정부 회의에서 전면적 건강 검진 진행 계획을 밝혔다.

주지사는 사할린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의무에 있어서 지자체에 의사들이 해결 불가능한 경우 전문 의료장비를 이용하도록 지방에 추가 종합이동진료차량을 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네웬스크로 추가 종합이동진료차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낼 예정이며 <노인 자원봉사단>이 예방 검진단을 돕게 된다. 이들은 홀스크,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구역에서 구성단계에 있는 연합단체로서 <사할린의 장수>기획의 지역 참가자들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연합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방에서 검진 받을 주민들에게 검진과정의 특수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올 초부터 사할린주에는 15만6천 명이 예방 검진을 받았고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는 10월에 몇몇 전문가가 포함된 의료진 6개 조가 구성되었다. 현재 그들은 지방에서 2차 건강 검진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도움으로 2만 3천여 건의 추가 진료상담이 조성될 전망이다.

올해 보건 분야에 대규모 개혁을 주도해온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의 의료기관 개편에 27억 루블리를 배당하여 225대의 새로운 의료기구를 구비했고 의료시설의 수리에 12억 루블리를 배당해 20개 병원과 진료소에 외관을 재단장했다. 2019년에는 진료소의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임금도 인상되었으며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주민들 중 의과대학 지방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을 사할린에 유치하기 위해 임금도 145만 루블리 - 260만 루블리까지 지급되고 임대 아파트 입주 시 2만5천 루블리까지 보상한다. 앞으로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65개의 새로운 의료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모스크바 국제 건축 축제에서 사할린주를 최우수로 인정

<2019 조드체스트위> 제27회 모스크바 국제 건축 축제에서 사할린 지역이 <러시아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기관의 지원 또는 지방과 국가의 요청으로 제작된 도시계획의 조합 및 단지 기획>부문에서 '황금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에는 총 15개 지역의 건설 및 건축학적 해결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극동지역은 하바롭스크 지역과 사할린주가 대표하여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기획을 평가했다.

이 축제에서 사할린 지역은 섬에서 실현하기 위해 계획된 우수한 건축적 해결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는 호무토보 변전소 구역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국토 종합 개발, 고르키 거리에 공공활동 단지 건설 및 관광·오락단지의 조성, 제7, 제8구역의 건축물 개발 개념, 음악 분수, 주 중심 볼니초나야 거리를 따라 교육 지구 조성 등의 기획과 코르사코프와 쿠릴 열도의 문화와 교육을 위한 시설에 대한 기획도 제시했다.

마지막 쓰레기장, 2027년에 폐쇄

지난 23일(수)에 있는 기자회견에서 사할린주 공공주택사업부 드미트리 자이체브 장관이 사할린의 쓰레기 하치장 현황과 관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모든 도시 쓰레기 하치장들을 폐쇄하는 과정은 2026~2027년까지 지속되고 이 과정은 모든 고형 폐기물 처리장과 쓰레기 처리 작업장의 건설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고형물 처리장을 건설하고 운영을 시작하기 전 일부 쓰레기 하치장은 2024년까지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오하 시 같은 경우 올해와 내년에 매립장 설계를 하고 2021~2022년에는 건설할 계획이다. 새 매립장을 운영하면서는 쓰레기 하치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자이체브 장관이 전했다. 이즈웨스트코워에 쓰레기 재활용 공장은 2020년 가을에 준공할 예정이며 이때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쓰레기 하치장 폐쇄 작업에 들어간다. 주중앙도시의 고형물 쓰레기 처리장과 쓰레기 재활용 공장 건설운영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이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태다.

단신

새 일본 총영사로 쿠노 카주히로 부임

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사로 쿠노 카주히로(1965년생)가 부임했다. 1989년에 일본외무성에 입사한 쿠노 총영사는 주러 일본대사관(모스크바), 주이스라엘일본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장관) 등에서 활약한 바가 있다. 러시아어가 능통한 그는 도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시카고 대학에서 인문학 석사학위를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쿠노 카주히로 총영사는 지난 18일(금) 저녁 늦게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해 총영사 임무를 시작했다.

주러 스위스 대사, 사할린주 첫 외교 순방

10월 18일 주러 스위스대사는 사할린 주지사와의 회견에서 운송, 물류, 건설, 의료, 관광 분야의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고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특별전권대사, 스위스 전권대사 이브 로시에는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협약했다.

주지사는 이 만남에서 일련의 전망적인 분야의 협력을 표명했는데 그중 사할린과 대륙 간 교량 건설, 산림 심층가공, 시멘트 및 건축자재 생산 등이 있다. 이외에도 사할린에 의약품 생산 사업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할린, 중국과 관광, 건설, 가두리 양식 개발에 대한 협력 제안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양원빈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중국 총영사관 총영사는 실무회의를 통해 새로운 공동 사업 분야를 논의했다.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 호텔 건설에 중국 측을 초청하여, 해양 개발 및 목재 가공을 위한 여건 조성을 논의하였다.

주목할 것은 중국은 사할린주의 주요 대외경제 협력국 중 하나라는 점이다. 2018년 양국 간 대외무역 규모는 거의 미화 19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사할린의 전체 대외 무역량의 12%에 달한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는 작년 대비 1.6배나 증가했다.

사할린주, 영화 제작 개발위원회 설립

사할린주에 새로 설립되는 영화 제작 개발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화 제작 탄생의 여건 조성을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교육적 프로그램과 사할린 영화제작 지원을 감독할 예정이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주재 실무회의에서 언급했다.

위원회 설립을 준비하는 실무그룹은 현재 고객 관리 프로그램의 사업 경험과 영화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국내외 경험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다.

실무팀은 3개월 후에 다시 모인다. 그간 기획의 참가자들은 영화제작 개발을 위한 지역 법령에 개정 초안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사할린을 주제로 한 두 편의 단편영화 제작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70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러시아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하는 유나이티드 가족음악회 청명한 가을 저녁을 수놓은 바이올린과 해금과 가야금, 장구의 선율과 조화

10월 18일 (금) 깊어 가는 가을 저녁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러시아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하는 유나이티드 가족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소와 사할린한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의 재단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으로 사할린에 이주 후 냉전체제로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했던 사할린 한인들의 아픔과 한인 1세대의 영주귀국 후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후손들을 위로하고 사할린 한인들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며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갖고자 하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의 강덕영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본 재단은 과거 독립운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외에 거주했던 고려인과 조선족의 정체성을 찾고 차세대 육성을 지속해 가고 있다.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 후손들에게 가족음악회는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라는 의의를 밝혔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은 한국의 얼과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고 또한 각국의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창이



되고자 설립된 문화의 전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박물관, 아트리움, 문화센터와 갤러리, 캠퍼스를 갖추고 품격 있는 클래식 음악공연, 문화예술 교육, 미술계 인재 발굴 및 전시, 장학사업, 역사자료 전시, 강연 등으로 세

계와 소통하며 수준 높은 문화를 보급하고 보다 좋은 나라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고 한다.

음악회에는 사할린 한인협회 임원들을 비롯한 여성회와 사할린주 정부 관계자, 한인동포들이 참석했다. 시작 전 박순

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은 가족음악회를 개최하며 한국과의 긴밀한 문화예술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관계가 향상되고 예술적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원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무대에 오른 음악인들은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지, 장구에 조한민, 해금에 문세한별, 가야금에 추현탁이 연주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지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곡을 시작으로 기독교의 찬송곡 '오 신실하신주'를 감미로운 선율로 전했다. 바이올린과 가야금의 협주로 연주한 서용석의 '꽃날'은 연인이 걷는 꽃길을 연상케 했다. 최옥삼류의 가야금산조는 가야금과 장구의 흥겨운 리듬으로 하모니를 이루었고 해금 연주곡 '비(悲슬 풀 비)'는 여인의 한과 슬픔, 울음을 해금의 소리로 털어 내는 듯했다. 이어 바이올린 연주곡 '엘가의 사랑의 인사'와 '몬티의 차르다스'는 경쾌하고도 열정적인 선율로 기분을 상승시켰다. 산조(散調)는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연주하는 민속 기악 독주법인데 장구의 조한민이 연주한 장구산조는 비가 오고, 쏟아지며, 홀쭉리듯 강렬하고도 신명나는 리듬에 더하여 고수의 추임새는 흥과 리듬의 맛을 더해 관객들로부터 힘찬 갈채를

받았다. 이어 가야금, 해금, 장구의 합주로 '구아리랑, 홀로아리랑, 아리랑'을 연주해 객석의 관객들과 함께 호응하며 아리랑 노래를 불렀다. 한서린 사람의 깊은 목소리를 담은 해금 연주의 '홀로아리랑'은 곡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였다. '주의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Amazing Grace)', '날 붙들어 주시네 (유레이즈미업 You Raise Me Up)' 곡은 바이올린, 해금, 가야금, 장구가 합주로 연주하면서 언어가 아닌 선율과 리듬으로 전달한 곡은 관객들의 마음에 깊고 몽클한 감동을 전해 주었다. 각 연주마다 갈채와 환호를 받은 가운데 마지막 앵콜곡으로는 '아리랑' 합주와 함께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아리랑을 불렀다.

가족음악회라는 주제의 소박한 음악회를 관객들은 연주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평을 했다.

'음악만은 세계에서 번역이 필요없다. 거기에서는 혼이 혼에게 호소한다.'는 명언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각 연주들은 수준 높은 음악의 선율로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취재: 글/박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매해 지리 단답 시험 쿠틀 마투아섬에서도 실시

10월 27일 사할린 주민들이 연례 지리학 단답 시험(딕탄트)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 지리학회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이 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시험은 지리학 분야에 주민들의 교양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널리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행사에는 누구나 무료로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를 위해 인근 등록된 시험장 조직위원회를 찾아가 필요한 서류 목록과 응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러시아 지리학 홈페이지에서 인근 단답 시험이 치러질 시험장을 찾아볼 수 있다.

4년간 시행된 이 시험은 놀라울 정도로 대중화되었다. 시험은 유치원을 비롯해 군부대에서도 진행된다. 사할린주의 단답형 시험이 치러질 가장 특별한 장소는 쿠틀의 마투아섬이다. 이곳에는 23개의 좌석이 배치된 특별 시험장을 설치하여 응시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이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투르프섬에는 5개의 시험장이 있고 이 중 한 곳은 군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주민만이 가서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전 받은 고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러시아 지리학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자신의 시험 결과를 알아볼 수 있다. 시험 준비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리 단답형 예비시험을 풀어도 좋다. 예비시험이라 해도 쉬운 것만은 아니다. (*'딕탄트'를 한국어로 '받아쓰기' 대신 '단답형 시험'으로 대치한다.)

Ежегодный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напишут даже на курильском острове Матуа

27 октября сахалинцы вновь смогу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ежегодном географическом диктанте.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организует тесты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 2015 года. Испытание запустили для повышения грамот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знаний в области

географии.

Бесплатно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акции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к организаторам на ближайшую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ую площадку и уточнить список необходимых документов и правила доступа. Найти ближайшую к дому аудиторию, где будут писать диктант, можно на сайте [Россий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http://www.rgo.ru).

За четыре года акция стала невероятно популярной. Ее проводят и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в военных частях. Пожалуй, самым необычным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диктан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жно назвать остров Матуа. На нем установят специальную палатку на 23 места, доступ в которую будет свободным для любых лиц. Для сравнения,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таких площадок пять, но одна из них находится в пределах войсковой части и попасть туда сможет не каждый.

Перед диктантом участникам присвоят уникальный ID, по которому они потом смогут узнать свой результат на сайте РГО. Для тех, кто хотел бы потренироваться, доступна [демоверсия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http://www.rgo.ru). Но и в пробном тесте задания не из легких.

사할린주에 첫 세쌍둥이가 등록되다

2019년의 사할린주에서 첫 세쌍둥이가 등록되었다. 세상에 빛을 본 세쌍둥이 여아(여자아이)는 예카테리나, 마리아, 마르가리타이다. 지역 주민등록사무소에 따르면 8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한 부모가 세배의 복을 받았다고 전했다. 자매 중 한 아이의 체중은 1020그램에 불과했고 산모의 태중에서 가장 영양 상태가 좋았던 아이는 1800그램이라고 했다. 예외 없이 이 여아들은 올해 사할린 지역에서 태어난 세 쌍둥이가 될거라 보고 있다. 해당 기관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1년에 평균 하나 또는 두 세쌍둥이가 태어난다고 한다. 지난 5년 동안 9건이 등록되었는데 이들 모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해당되었다. 두 쌍둥이는 상황이 다르다. 한 해에 60쌍둥이가 태어난다. 2019년 10월 현재까지 주에는 57 두쌍둥이가 출생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남아(남자아이)들이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두쌍둥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출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홈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프, 네벨스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다. 지난 5년간 쿠틀스크, 티모브스코예, 토마리, 마카롭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고 사할린주 주민등록사무소가 밝힌 가운데 사할린 지역에서 두쌍둥이와 세쌍둥이 출생의 역학은 안정적이며 과거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Первую тройню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первую в 2019 году тройню. На свет появились девочки Екатерина, Мария и Маргарит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агентстве ЗАГС, тройное счастье обрели родители из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еще в августе. Одна из сестер весила всего 1020 граммов. А самая упитанная малышка за время беременности мамы успела набрать 1800 граммов.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эти крохи станут единственными тройняшками, рожденными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оторую привели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фильного ведомства, в среднем за год на свет появляется одна или две тройни. Так,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только девять таких случаев. При этом все они приходятся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двойняшками дела обстоят иначе. В год рождается до 60 пар. Например,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октябрь, в 2019 году в области появились на свет уже 57 двоен.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 мальчики.

— Опять же, чаще всего близнецы рождаю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алее идут Холмский, Долин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и Невельский районы.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не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ни одного случая в Курильском, Тымов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 отметили в агентстве ЗАГС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слову, динамика рождения двоен и троен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табильная и держится на уровне прошлых лет.

승리 박물관에서 사할린 등대 전시회 개막

<승리>종합기념박물관에서 '사할린과 쿠틀열도의 등대' 전시회가 열렸다. 이곳에는 사할린과 쿠틀 열도의 실제 장비와 도구들이 전시되어 등대 업무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바다를 향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선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진과 도표가 전시되었다.

(7면에 계속)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016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사할린 잔류자들>연구서(저자: 현무암, 파이차드제 스베틀라나)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올해 7월 말에 한국에서 출판되었다. 홋카이도 대학교 교수들의 연구서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인 서재길 교수가 한국어로 옮겼다.

아래에 책 소개와 출판사 서평을 소개한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잔류자들: 국가가 잊은 존재들의 삶의 기록》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길을 열어나간 사할린 잔류자들

'사할린 잔류자들', 그들은 일본 통치 시기에 본국의 자원 근거지 역할을 맡은 사할린에 투입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각국의 단일한 태도와 얽힌 이해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고국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국가에 의해 지워지고 잊힌 존재가 되어, 머나먼 타지에 일방적으로 남겨진 '잔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역사적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의연하게 삶을 이어나갔다. 당시 사할린에 잔류해야 했던 사람들과 그들이 이룬 가족은 오랜 시간 세대를 이어가며, 국가라는 개념에 귀속되지 않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찾아나갔다. 사할린, 일본, 한국 그 어디에서도 외지인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의 삶은 분명 힘들고, 국가 체제의 밖에 놓인 존재가 겪어야 할 비극이었으나, 한 편으로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길을 열어나간 주체적 삶의 궤적(흔적)인 것이다.

<사할린 잔류자들>은 그들이 개척해 나간 이러한 '삶'에 주목한다. 이 책은 그들을 국가에 의해 희생당한 비운의 존재로서 역사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개척한 트랜스내셔널한 생활 실천의 가능성과 창조성을 들여다본다. 이 책은 전후부터 현재까지 다민족·다문화적 존재로서 다층의 정체성이 혼재된 생활 세계를 구축해온 그들 삶의 면모를 살펴으며, '단일 국가'라는 관념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국경을 초월한 트랜스내셔널한 생활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역사 문제와는 다른 전후(戰後)의 생활 세계를 보여준다.

▶ 책 속에서

1장 일본, 한국, 러시아 세 나라로 확대된 생활 공간 (16~17쪽)

2014년 6월에 삿포로에서 열린 북동아시아 축제. 이 축제는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남한), 북한, 몽골이 문화적 배경인 사람들이 모이는 교류의 장이다. 홋카이도 조선 초중고등학교와 토요 교실 러시아학교의 학생들도 각자 민족의상을 걸치고 노래와 춤을 뽐낸다. "조선의 전통 의상이 잘 어울리네요"라는 말을 듣자 올리아는 웃으면서 대답한다.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카레얀카(조선인)니까요!" 옆에 있던 육촌 동생 료샤도 "나도 카레이츠(조선인)야!"라며 박자를 맞춘다. "나도!", "나도!"라며 아이들은 일본어와 러시아어로 소리를 지른다.

2장 전후 사할린에서 살게 된 어머니와 귀국 3세 손녀의 정체성 (55~56쪽)

와키 일가는 1951년 집안의 기둥이었던 텐 북만이 죽고 난 뒤 생활이 어려워지자 1954년에 소련 국적을 취득했다. 그런데 요네코가 1961년에 결혼했던 첫 남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국적자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나홋카(Nakhodka, 러시아의 연해주, 동해 연안 남부, 포트르 대제 만



<사할린 잔류자들>
현무암, 파이차드 스베틀라나 지음,
고토 하루키 사진 | 서재길 옮김

(灣)에 면한 항구도시)의 북조선 영사관 직원이 사할린으로 찾아와 사할린 조선인들에게 북조선 국적의 취득을 권유했다. 전 남편은 이를 수락하여 국적을 북조선으로 변경했다. 한국과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던 냉전의 한가운데에서 무국적 상태를 탈피하기 위한 선택지의 하나였다. 소련 국적의 요네코와 달리 북조선 국적의 남편은 반년마다 여권(신분증명서)을 갱신해야 했다. 요네코는 글을 못 배운 남편을 대신해서 신청서를 썼다. 그때마다 북조선 영사관에서는 "김일성 수령의 명예를 위해 조국(북조선)으로 가야만 합니다"라고 쓰인 편지가 왔다.

3장 '영주 귀국'의 삶을 개척한 인생 (100쪽)

유리코는 1946년까지 일본학교를 다녔고 집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했다. 그 뒤에는 조선학교에 다니게 되어 조선인 커뮤니티 속에 휩쓸렸고 결혼 상대 역시 조선인이었다. 이후로는 거의 한국어만을 사용해왔다. 그녀의 아이들이 러시아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아이들과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학교 교사에게서 가능한 한 집에서 러시아어를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신이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역시 언어 환경을 바꾸게 되었다.

4장 세 가지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귀국 3세 (118쪽)

열 살에 일본으로 귀국한 미카의 동생 유미는 일본 학교를 다녔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도쿄에서 일하고 있다. 사귀는 사람도 일본인이고 생활 방식도 일본식이다. 엄마나 언니처럼 그녀 역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끔씩 사할린에서 방문하는 아버지나 할머니는 유미에게 한국 민족이라는 의식을 이어주려 한다. 그러나 유미에게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하다.

미카의 정체성은 유미와는 다르다. 일본 국적인 미카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지마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지만, 이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다. 장녀인 미래이는 일본 유치원에 보내지 만, 러시아어를 가르치면서 토요 교실의 러시아학교에도 데리고 간다.

(다음 호 계속)
(출처: 책과 함께 신간)

글로벌 한상,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미래 100년을 함께 열다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10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3일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세계한상대회는 약 4,000여 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2002년부터 세계 한상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아해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과거 한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 경제 강국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한상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상 네트워크 바탕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교류 및 세미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대회 하루 전인 21일(월) 전남·여수 지역 경제인 간의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한상CEO네트워킹'이 열렸다.

대회 기간에는 '기업전시회(22일~24일)', '투자유치 설명회(23일)', 'K-Food Trade Show(23일)', '세미나(24일)'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한상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교류 프



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편, 한상의 가치와 비전을 우리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올해 새롭게 마련되었다. '한상 CEO특강(21일)', '한상비전콘서트(23일)' 등을 열어 일반인들에게 한상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전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 향한 한상의 역할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한상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올해는 특히 프로그램 내실화에 만전을 기한 만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적극 교류·협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한국 외국어대학교 방일권 교수, 사할린에서 한국 성씨에 관하여 강의

지난 21일(월) <모두 알고싶다! 나의 성은 초이가 아니라 최입니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성씨와 이름에 대한 강연차 한국 외국어 대학교 방일권 교수가 사할린을 방문해 두 차례 강연을 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강의는 사할린국립대에서, 저녁 강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했다.

방일권 교수는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 조사 연구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한때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위원회 전문 연구원으로 사할린에 여러 번 방문한 바 있다. 예전부터 일본 식민체제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유골 봉환, 기록물 관리등 역사적 문건과 증거들을 연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강연에서는 사할린 한인파 러시아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한국의 성씨 체계가 만들어진 과정과 이름의 형성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과거에는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아명, 자, 호에 대해, 과거 한국의 이름 체계와 성씨와 본이 체계화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배경 등 여러 역사적 배경들을 이야기했다.

방 교수는 사할린 대학생들이 강연 주제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이었다고 전했다.

저녁 강연의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았다. 강연장에는 주로 사할린한인 2세와 3세들이 찾았기 때문에 방일권 교수는 한국의 이름, 성의 체계화와 더불어 사할린 한인파 고려인들 사이에 성을 표기하는 차이, 성이 바뀌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강연 참석자들은 특히 한 세대가 이름에 같은 돌림자를 쓰는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한 예로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류춘계(본명 류시옥)의 작품 <산중반월기>를 가지고 작가의 이름을 분석해 보았다.

사할린 한인사 전문가로서 방 교수는 사할린 동포들의 귀환 운동을 추진했던 박노학 회장의 사할린 한인 귀환 희망자 명부를 강연 자료로 활용했다.

강의 이후에도 한국식 이름과 성에 대하여 질의 응답이 이뤄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와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초청 특강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 출장소(소장 박기동)와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노력으로 성사되었다고 전해졌다.

(취재: 글/김기윤, 사진/이예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ркестр «Сахалинские надежды» отправляется на гастроли в Корею

С 28 октября по 3 ноября 2019 года состоится гастрольный тур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дет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Сахалинские надежды»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ездка смогла состояться благодаря плодотворно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мена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ктора искусствоведения господина Ян Пен Су,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культур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ерасимовой Ирины Викторовны и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Даровской Марины Германовны.

Оркестр был создан на базе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олее 20 лет назад. С 2015 года детским коллективом руководит преподаватель школы Ан Алексей Чанерьевич.

За это время оркестр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совместном концерте с молодежно-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KYDO»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лись гастрольные поездки в составе 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в города Благовещенск, Хэйхэ, Харбин (КНР), Сеул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ноябре 2017 года был проведен юбилейный концерт оркестрового отдела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де оркестр исполнил музыка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совместно с специально приглашенными на этот юбилей музыкантам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ркестр насчитывает 32 ученика и 9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остав оркестр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трунная группа из скрипок и виолончелей, духовая группа состоит из 6 флейт, 2 кларнетов, 1 тромбона, саксофона, имеется также ударная группа, которая вошла в оркестр с открытием класса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Благодаря его созданию, репертуар оркестра стал более насыщенным и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ня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о время предстоящей гастрольной поездки запланированы концерты по различным городам Кореи: город Кимчон провинции Кенсан Букто, город Икса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 Букто и, конечно, Сеул.

Оркестр «Сахалинские надежды» подготовил серьезную программу из класс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 «Интермеццо» из оперы «Сельская честь» итальян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Пьетро Маскани, Ж.Бизе — Менуэт из сюиты «Арлезианка», И.Брамс — «Венгерский танец» № 7, Й.Штраус — «Полька-Пиццикато», Ж.Массне — «Размышление» из оперы «Таис», «Три танца» — француз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Лео Делиба. В эти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юные музыканты покажут не только мастерство коллективного музицирования, но и умение соль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Так, например, в «Менуэте» из сюиты «Арлезианка» Ж.Бизе, соло на флейте исполнит участница оркестра Лим Богдана, а в «Прелюдии и Аллегро» австрий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Фриц Крейсlera, соло на скрипке исполнит юная скрипачка оркестра Заец Эллина.

В гастрольный репертуар оркестра входят и корей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ая песня «Ариран», популярная и всем известная песня в Корею «Золотая гора Кымгансан» и др.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зрителя подготовлено «Попурри на темы популярных российских песен», куда вошли знакомые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песни «Катюша», «Подмосковные вечера», «Журавли»,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сполнение этого варианта попури всегда с интересом принимается корейской публикой, они начинают подпевать знакомые мелодии, затем благодарят артистов за прекрасное исполнение бурным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Один из концертов в городе Иксан запланирован совместно с церквями этого города «Бук Иль» и «Бо Гван». Кроме основ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оркестром подготовлены три произ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с церковным хором, сводным коллективом которого будет дирижировать корейский дирижер.

Ну и, конечно, для детей, в свободные от концертов дни, подготовлена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мечена ознакомительная экскурсия по столиц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роду Сеул, поездка в парк аттракционов «Диснейленд», посещение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и на самой высокой башне Кореи «Lotte World Tower», аквариум, музеи.

С начала учебного года участники оркестра со все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и с огромным желанием ведут подготовку к предстоящей поездке и надеются удивить корейских зрителей яркой подготовленной программой.

Пожелаем нашим юным дарованиям успеш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льга Ри

В Сеуле прошел первый Форум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ран СНГ

18 октября в Сеуле прошел 1-й Форум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клубов (ОБКБ) СНГ,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являющиеся гражданами 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по поводу путей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НГ и Южной Кореей.

Участники, которые прибыли из России, Беларуси, Узбекистана, Киргизии, Украины и других стран, обсудили ситуацию, которая сложилась в сфер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и прочих направл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их странами с Южной Кореей.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КИТА Син Сын Гван отметил, что РФ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ят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диалог и активизируют обмены между бизнесменами двух стран. Си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зарубежные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сыграют роль моста, который свяжет компа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Россией и странами СНГ.

По итогам заседания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ОБКБ СНГ и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КИТА. В документе стороны заявили о намерении сотрудничать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связей России, других стран СНГ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осл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КБ **Дмитрий Ким**, который живет и работает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ообщался с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рассказав о задачах их организации и роли в развит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с Кореей.

В чем вы видите роль ОБКБ в плане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прочих направл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странами СНГ и Южной Кореей?

Дмитрий Ким: ОБКБ являе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латформой для общения и знакомств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имеют общие интерес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связей с Кореей. В результат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участников мы лучше узнаем друг друга, находим партнеров по бизнесу и проч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и получаем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ывать затем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Кроме того, мы помогаем друг другу входить в различные сферы бизнеса каждой из стран, где мы живем. Я считаю, что за объединениями типа ОБКБ - будущее, так как подобные структуры позволяют существенно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и сэкономить усилия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деловых проектов.

Что, с Вашей точки зрения, на текущем этапе следует сделать для актив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митрий Ки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ажно создать финансов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Процесс заключения контрактов и их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должно стать проще. Как я считаю, для этого надо открыть структуру тип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экспортно-импор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как видится, важно создание комиссии по разрешению конфликтов и споров, а также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которая помогла бы находить партнеров по бизнесу.

Ка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ы ждете от нынешнего форума в Сеуле?

Дмитрий Ким: Я надеюсь, что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зволит нам заявить о себ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в различных круг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казать, что мы являемся рабочей структурой и готовы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Также безусловно надеюсь, что мы все сможем завести полезные контакты, связи, которые в будущем помогут в работе, то есть, если говорить современным языком, провести нетворкинг.

Каков настрой корейских партнеров по поводу России?

Дмитрий Ким: Очевидно, что с обеих сторон присутству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месте с тем в практическом, правовом плане существует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малы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зачастую не может решить своими силами и опираясь лишь на свои сред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финансовые. В целом же все хотят -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и, и Кореи - простых и понятных правил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Это позволит заметно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взаимовыг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совмест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Проект «Портрет сахали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Романа Хе
(Хе Нам Ёги)

8 ноября
в 17.30

«Нота Ля»
к юбилею поэта

Поэт, бард, переводчик, автор сборников стихотворений «Гудящие раковины», «Енбун, или Полёт бабочки», «По сорочьему мосту», двухтомного издания стихов и переводов («Нота Ля», «Светлая ночь», 2018).
Родился в городе Томар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конца 90-х годов живё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трудничал с областным издательством, с редакц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радио ГТРК «Сахалин», газеты «Советский Сахалин» и др.
Публиковался в различных литературных журналах и в коллективных сборниках. Многие стихи переложены автором на музыку и исполняются под гитару. Переводчик сиджа из классической корейской поэзии.
Лауреат прем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ы (1991),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00),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В сентябре поэт отметил своё 70-летие.

12+ КОНФЕРЕНЦ-ЗА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ул. Хабаровская, 78, 1-й этаж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45 25 02**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570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стала самым крупным донором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КНДР

В этом году на РК пришлось самая большая доля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для КНДР,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через различ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2 октября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гуманитарных вопросов (ОСНА). Показатель РК составил 9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29,5% от 30 млн 549 тыс. долларов, собранных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Швейцария – 8 млн 30 тыс. долларов. Далее следуют Швеция – 5 млн, Россия – 4 млн долларов. В июне РК выделила на помощь СК 4,5 млн долларов через Всемирную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WFP) и 3,5 млн долларов через ЮНИСЕФ. В этом же месяце мэрия Сеула выделила 1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оказа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омощи.

В РК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дороги будущего

К 2030 году в РК появятся дорог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ряжать проезжающие по ним электромоб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сообщили, что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проект стратегии по развити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ехнологий четверт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включающих большие данные,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 интернет вещей. Определены четыре главные цели – безопасность, комфорт, экономичность и экологичность. Поставлены цели по снижению на 30% проблем с наиболее загруженными участками, на 30% расходов на поддержание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и дорог, на 20% шума и на 15% загрязняющих веществ.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определены 100 ключевых технологий.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Ким Ён Сок заявил, что на основе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стратегии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безопасные дороги.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в РК борются за свои права

20 октября в Сеуле перед финансовым центром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округе Чун-гу девять организаций по защите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в том числе профсоюз рабочих-иммигрантов, провели всеобщий митинг. Его участники призыва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гарантировать право на работу и жизнь».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из Непала, Бангладеш, Шри-Ланки, Вьетнама, Индонезии, Камбоджи, Мьянмы, Филиппин и Узбекистана. Они говорили о росте случаев гибели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ностранцев, не имеющих никакой социальной и страховой защит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К на работе погибли 150 иностранцев. За пять лет отметка выросла на 60%. Участники митинга озвучили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 тяжелыми условиями работы, бесправием перед работодателем и несовершенством системы. Они призва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празднить систему жесткого контро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рабочих, которая ограничивает смену работы.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иностранцы, прибывшие в РК по рабочей визе, могут сменить работу только при согласии директора предприятия, на котором они трудоустроены. Кроме того, озвучены требования об изменении нелогичных практик,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выплата рабочему выходного пособия тольк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 покинет страну.

Беженцы из КНДР осудили то, как Пхеньян провёл отборочный матч сборных по футболу Юга и Севера

20 октя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оюз движения за свободную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ходят беженцы из КНДР, отправила на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листовки. В них критикуется способ провед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властями матча сборных РК и КНДР в рамках Азиатского отборочного турнира на чемпионат мира 2022 года. 20 октября восемь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мерно в 8 часов вечера в деревне Волькот-мён города Кимпхо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существили запуск 500 тыс. листовок с критикой политик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и 500 книжек на больших воздушных шарах. К шарам также прикрепили 2 тыс. однодолларовых купюр, 1 тыс. USB и 1 тыс. SD-карт памяти с различными данными. Глава организации Пак Сан Хак заявил, что КНДР даже мирное спортив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превратило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единого народа.

В ноябре в РК состоится пер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 Каннине

8 ноября откроется пер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 Каннине, который посвящён фильмам, снятым по мотивам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ошлый четверг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комитета.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фестивал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специальную выставку отечественных экранизаций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снятых в 60-70-е годы. Подготовлена также программа показа фильмов нов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режиссёров.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пройдёт выступление музыкальной труппы Каннина, посвящённое первой женщине-режиссёру Алис Ги-Блаше.

(RKI)

В Сеуле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В воскресенье 27 октября в центре Сеула пройдет IX фестивал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2019".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т вот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одряд и неизменно привлека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и зрителей, позволяя жителям Кореи приобщиться к 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е.

По традици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ает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в Корею. Девизом фестиваля в этом году станет выражение: "Разнообразие культур как красота роз... И Россия - одна из них!"

Осно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йдут в самом центре Сеула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Там будут разбиты тематические палатки, где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блюда российской кухни, приобрести сувенир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сделать многое другое, чтобы с интересом провести время, узнав при этом получше российскую культуру и быт. Гвоздем программы фестиваля станет полторачасовой концерт с выступлениям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и отдельных артист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КНДР заверши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рупной турзоны в апреле 2020 год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руп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ны "Вонсан-Кальма", которая расположена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КНДР, завершится к апрелю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идет возведение второй очереди, которая будет сдана позже. Уже более года действует постоянный авиамаршрут, который связывает аэропорт Кальма с Пхеньяном. В самом Вонсан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гостиниц,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ют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так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б этом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в Вонсан сообщили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ак удалось лично удостовериться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РГ",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силуэт полуострова Кальма, который прикрывает от ветров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портов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КНДР - города Вонсан, радикально изменился. Вдоль побережья на протяжении четырех километров выстроились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зданий высотой от 5 до 20 этажей.

Как пояснили сопровождавшие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Г"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ей КНДР, это нов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приморская зона "Вонсан-Кальма", возведение которой было начато по отдельному распоряжению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омплекс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гостиницы, аквапарки, спортивные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заведения, а также прочие объекты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анее планировалось сдать комплекс уже к октябрю этого года, но затем наш лидер дал указание не торопиться.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ервая очередь турзоны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а к апрелю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 пояснил чиновник, не исключив, что на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будут приглашены и иностранные журналисты.

Учитывая, что 15 апреля в КНДР отмечается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аздников -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День солнца", когда родился основатель КНДР Ким Ир Сен, то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открытие турзоны будет приурочено именно к этому праздник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также добавили, что пока речь идет о сдаче первой очеред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ны, но сейчас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второй очереди. С набережной Вонсана хорошо видны очертания зданий, которые возводятся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этапа. "Эта туристическая зона будет рассчитана как на наших, корейских, так и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Конечно же мы ожидаем, что значительную долю гостей в турзоне "Вонсан-Кальма" состав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и. Мы всегда рады видеть российских друзей", - подчеркнул собеседник.

Власти КНДР также развивают и транспорт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которая должна упростить проезд туристов в новую зону.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новое здание аэропорта Кальм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и воздушными воротами Вонсана. Как следует из объявления в гостинице "Тонмён", с июня 2018 года авиакомпания "Корё" открыла маршрут, который связал столицу страны (город Пхеньян) с Вонсаном. Рейсы из Пхеньяна до аэропорта Кальма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раз в неделю, полет занимает 40 минут. Отметим, что до турзоны можно также добраться по скоростной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путь займет два-три часа.

Параллельно в Вонсане идет реконструкция имеющихся гостиниц, которые будут введены в повторную эксплуатацию в обновленном вид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частности, недалеко от главной набережной Вонсана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монт гостиницы "Хэан" ("Приморская"). Судя по вывешенному у стройплощадки плану, новый облик здания навеян знаменитым отелем Burj Al Arab Jumeirah, но будет иметь на фасаде два элемента конструкции, напоми-

нающие парус. На крыше гостиницы "Хэан" расположится ресторан, обзорная площадка. К главному корпусу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будет примыкать прямоугольное строение, где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стойка регистрации, ресторан, кафе и, возможно, фитнес-центр и бассейн.

Напомним, что ранее, примерно в 20 км от Вонсана, был построен крупны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Масик, который по сво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трасс не уступает многим известным курортам. Если проехать от Вонсана далее на юг, то можно добраться до "Алмазных гор" Кымгансан, которые многие считают самым красивым горным парко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ак было заявлено ранее, власти КНДР намерены сделать ставку на привлечение туристов в этот регион, где можно будет отдыхать в любое время года. Связка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Масик - турзона "Вонсан-Кальма" - горы Кымгансан" выглядит очень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й в этом плане.

Отметим, что, как сообщала ранее "РГ", в Пхеньяне также идет возведение новых гостиниц, которые предназначены как для корейцев, так и иностранцев. "Потребнос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ощностей назрела, это очень хорошо ощущается именно сейчас.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сентября в Пхеньяне проходило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ключа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выставку промышленных товаров и друг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сентябрь очень популярное среди туристов время из-за обычно приятной, теплой, но уже не жаркой погод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результате был большой приток гостей, возникли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с их размещением. В итоге мы справились и решили все вопросы, но стало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чевидно, что нужны новые отели", - пояснил тогда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чиновник.

Судя по всему, в КНДР ожидают значитель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турпотока.

Скорее всего, его основу представят гости из Китая,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составляют более 9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посещающих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Как сообщило интернет-издание NK News, в пиковый сезон в Пханмунжом, который расположен 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приезжают на экскурсии до 1600 китайских туристов. Общий же турпоток из КНР в КНДР был оценен на уровне 300-4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год. Как отмечают эксперты, заметный рост турпотока из Поднебесной в Страну чучхе стал заметен с 2018 года, когда произошло резкое потепление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Пекином, а лидеры КНР и КНДР провели несколько личных встреч.

Как заявило японское издание "Асахи Симбун", во время приезда лидера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а в Пхеньян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 активизации связе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где туризму отведена очень заметная роль.

Недавно также появи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что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возобнови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дъездных путей к новому приграничному мосту, который связывает китайский Дандун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город Синийджу. Сам по себе мост большой, он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 но КНДР до сих пор не построила к нему подъездные пути и таможеню. По некоторым слухам, деньги на это в итоге выделили китайцы, почему и возобнови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сли новый мост будет введен в строй, то это позволит резко увеличить пропуск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и поток людей и грузов между КНР и КНДР. Существующий сейчас между двумя городами старый автомобильно-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мост уже серьезно износился, нуждается в ремонте и в целом обладает ограниченными пропуск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Пхеньян - Вонсан)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дут центры цифров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IT-куб»

В 2021 году они появятс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и Ногликах, а еще через 3 года – в Поронайске. Учреждения станут кузницей кадров в сфере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На нов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ю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будут изучать языки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я, научатся писать приложения для мобильных устройств, работать с большими данными и создавать виртуальную реальность.

– «IT-куб» – это инновационн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лощадка, учрежд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де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дети и подростки в возрасте от 5 до 18 лет, – отмечает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образования РЦОКО Елена Будылева. – Проект сделает технические профессии популярнее, увеличит охват обучающихся IT-технологиям на Сахалине, а также поможет ребятам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ей.

Ежегодно на площадках «IT-Куб» будут бесплатно обучаться более 400 островных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А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акциях и мастер-классах,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на базе учреждений, каждый год с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свыше 1500 школьников.

В рамк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юные разработчики и инженеры буду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с ведущими федеральными 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и вузами.

Создать отделения «IT-Куб» на Сахалине невозможно без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Поэтому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е начнут подбор и обучение педагогов в обла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обототехники и IT – инжиниринга.

Отметим, создани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центров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Цифров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среда» нац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Учреж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анее заработали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и хорошо себя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и.

Напомним, сегодня высоким технологиям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обучают в детском технопарке «Кванториум». Учрежд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о на ребят в возрасте от 11 до 17 лет. Здесь школьники занимаются робототехникой, авиамоделированием, изучают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виды энергии. В сентябре в корпусе гимназии №3 открыли новое отделение технопарка. Его оснастили современным мультимедий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 высокопроизводительными графическими станциями, интерактивными панелями,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ими наборами, камерами, шлемами VR, очками дополненной и смешанной реальности.

Почти 20 стран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этапе Кубка мира п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на Сахалине

Масштаб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м комплексе «Горный воздух», с 9 по 21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21 октября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На Сахалине зимой соберутся более 200 участников – спортсмены с нарушениями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и зрения и их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более чем из 17 стран мира. В программе состязаний пять дисциплин – слалом-гигант, слалом, супер-гигант, суперкомбинация, скоростной спуск.

– Мы рады, что нам доверили принять э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и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они прошл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У нас уже имеется солидный опыт, необходим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по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И, конечно, к предстоящему этапу Кубка мир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мы готовимся со всей серьезностью,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зимним видам спорта – Димитрий Лазаровский из Сербии – рассказал, что они с коллегами накануне посетили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Мы убедились, что спортсмены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в очень хороших условиях. На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ах учитываются все технические требов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тандарты и,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 соблюдается техника безопасности. Спасибо за проделанную работу! – поблагодарил Димитрий Лазаровский. – Сахалин обладает большим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Вся необходим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аэропорт, гостиницы – здесь находятся в близкой доступности.

На встрече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на островах.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лыжам среди спортсменов с поражением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и слепых (Para Alpine Skiing World Cup)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не один раз, а на протяжении следующих трех лет. При этом в 2022 году соревнования состоятся накануне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екине.

Кроме того, обсужда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в 2027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сноуборду, лыжным гонкам и биатлон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выразили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может успешно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этим большим спортивным событиям.

«Горный воздух» уже сегодня располагает 35 километрами трасс любого уровня сложности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ребования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лыжного спорта.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горнолыжном курорте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ся этап Кубка Азии, в которо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сильнейшие спортсмены из 15 стран мира. С 2016 год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стречает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среди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 состязаниях участвуют спортсмены трех категорий – соревнующиеся стоя, сидя, а также имеющие нарушения зрения. Помимо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л столицей первых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Юные горнолыжники тоже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островные трассы.

Чехов-центр открыл 89-ый театральный сезон

Официальный старт театрального сезона ознаменовался премьерой спектакля «Про Федота-стрельца, удалого молодца».

Стихотворную пьесу Леонида Филатова на большую сцену перенес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островного театра Александр Агеев. Произведение по мотивам русских сказок вышло в 1987 году и благодаря неповторимому филатовскому юмору вмиг разошлось на цитаты.

Дух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сказок в сценографии передал главный художник Чехов-центра Кирилл Пискунов.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спектакля написал музыку именитый композитор Николай Морозов. Артистам пришлось освоить народ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 трещетки, бубны, тарелки и почти забытые сейчас – куклики, калюку, жалейку.

– Спектакль замечательный! Мы с мужем получили огром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Костюмы – глаз не оторвать, красивейшие декорации,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конечно, – энергетика наших артистов, – поделилась южносахалинка Елена Саранцева. – Мы всегда ходим в театр, когда бываем в отпуске. Так вот, наш Чехов-центр ничем не уступает Москве и Петербургу.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фициально 89-ый сезон открылся премьерой 19 и 20 октября, артисты начали радовать зрителей еще в сентябре. Состоялось несколько показов перформанса «Вторник короткий день» в постановке москов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Александра Созонова. Чехов-центр уже побывал с гастрольями на Итурупе и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театральном фестивале в Хабаровске.

В этом году труппу пополнили сразу пять артистов. Все они вышли на сцену в премьерном "Федоте". А выпускница Новосиби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Светлана Задвинская сыграла одну из главных ролей.

В нынешнем сезоне сахалинских театралов ждут еще несколько запоминающихся премьер. Уже 26 октября на малой сцене представят спектакль «Экстремалы» по пьесе Фолькера Шмидта, над постановкой работает режиссер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етр Шерешевский. Также сахалинцы увидят спектакли: «Мария Стюарт» по трагедии Фридриха Шиллера, «Калекка с острова Инишман» Мартина Макдонаха и другие премьеры.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создают команды для помощи посет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их поликлиник

Более 70 сахалинцев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обрались на выходных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ктивные пенсионеры успели не только сдать нормативы по бегу, но и обсудить общ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У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появилась идея, как помочь землякам со всеми сложностями, которые те испытывают, приходя в поликлиники. Первый отряд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появился при 4-ой поликлини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тем начинание подхватили в Томари.

– Мы хотим оставаться активными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приносить пользу людям. Благодаря «Сахалинскому долголетию» мы весь год тренируемся, ходим в бассейн, в театр. А волонтерств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йти полезное применение всем нашим знаниям и опыту, – поделилась участница проекта Диля Ирголеева.

Участники Совета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и поликлиниках разъясняют нюансы прохождения медосмотров. С их помощью пациенты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к руководству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и областным властям.

– С обращениями будем разбираться. Они тоже бывают разные: эмоциональные, обоснованные и необоснованные. Иногда в них озвучивают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решаются не на уровне поликлиники, а в минздраве. Главврачам медучреждений иногда просто не хватает времени, чтобы рассмотреть все обращения. Вот мы и будем разбирать их, сортировать и направлять по назначению, – поделился один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движения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Владимир Забелин.

Сейчас активисты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формируют по одному отряду на каждую южно-сахалинскую поликлинику – от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а до южных микрорайонов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 подбору добровольцев подходят основательно: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нашлись и юристы, и врачи, вышедшие на пенсию.

–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такие инициативы. Людьюми движет искреннее желание помочь, – 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улучшает организацию леч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 нас появляется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всестороннего анализа и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дл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людьми.

Сегодня общественники прорабаты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связи с жителями через еди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Все рабочие вопросы, анализ поступающих обращений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дут совет по развитию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Д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рабочем совещании губернатор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овый совещательный орган займется созданием условий для появл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в обла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будет курировать запуск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и грантовую поддержку сахалински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Впервые о создании совета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Восток». Сейчас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изучает отечественный и зарубежный опыт по работе с программами рибейтов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ю кинокомиссий.

– Развитие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на островах позволит поменять имидж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На материке многие считают, что наша область – суровый край. Островной кинематограф изменит отношение к Сахалину и Курилам, в частности, привлечет туристов,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дры, а также затормозит отток населения, да и в целом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вышению культурного уровня,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ект помогут развить генеральный продюсер сахали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Алексей Агранович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Park Production» Дмитрий Добужинский.

– Мы ставим задачу не просто создать культурный проект, а сформировать отрасль, которая бы решала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стоящие перед областью. Одна из них –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я. Чтобы человек лучше ассоциировал себя с малой родиной, необходимо наличие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культурной среды. Наши действ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ее возрождение. Ресурсы для этого есть, – рассказал Алексей Агранович.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вновь соберется через 3 месяца. За это время ее участники должны подготовить проект поправок в региональн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развития кинематографа. Также будет обсуждаться создание двух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с островной тематикой.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изнали лучше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рхитектурном фестивале «Зодчество 2019» в Москв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градили одной из высших наград фестиваля «Золотым знаком» в номинации «Проекты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х ансамблей и комплексов, разработанные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ли муниципальным заказам, либ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л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сего на фестивал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архитектурные и строительные решения из 15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едставляли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оекты оценивали экспер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 фестивале презентовала лучши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решения, планируемые к реализации на островах. Среди них – комплексная застройк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районе электроподстанции «Хомуто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иней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делового и туристическ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 улице Горького,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застро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7 и 8 микрорайона, светомузыкальный фонтан,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вартал по улице Больнично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акж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объекты культуры и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саков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Убежден, что главным фактором победы в номинации стало объединение усилий област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о внедрению новых современных подходов в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е региона. Уже сегодня на островах создаются проекты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которые после их реализации станут примером для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архитектуры 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лавный архит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мен Вялкин.

В день за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ь посетил зампред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о вопроса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Виталий Мутко. Он осмотрел выставку, посетил экспозиц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ице-премьеру рассказали о то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удут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ены темп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роме этого в области готовы приступить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о ренов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рхитек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Зодчество 2019» проходит в 27 раз.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ирает гостей из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ья. На его площадках специалисты обсуждают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регионов и городов и как они будут выгляде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узнают о наиболее важных событиях и решениях, которые окажут влияние на облик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한국교육원, 전통 김치축제 개최

참가자들은 매우 만족

19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은 <김치>축제 참가자들로 흥성거렸다. 사전 등록을 한 이들은 주로 사할린한국교육원의 요리교실 수강생과 교육원과 관련해 참가한 분들이다. 그중 동포를 비롯해 러시아인도 많았고, 아르메니아인, 미국인도 있었다. 일부는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도 함께 참가했다. 사할린에서는 <김치>축제는 여러 번 개최되어왔다. 축제의 주최 측도, 후원 기관도 달랐었다. 작년에 25주년을 맞이한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은 기념행사 중 하나로 <김치>축제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도 <김치>축제를 개최기로 했다. 동북아청소년협의회(이사장 김영곤)는 후원에 나섰다.



행사의 전 진행을 교육원 요리교실 강사 허은설현 선생이 맡았다. 김주환 원장, 유을숙 여사의 인사로 시작한 축제는 본격적으로 맛있는 김치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허은설현 선생의 지도로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먼저 백김치, 다음 겨울김장 김치를 만들어보았다. 주최 측에서는 미리 배추를 절여놓고 양념도 준비했다. 그리고 무우, 배, 대추, 파, 마른 실고추, 생강 등 김치 만들기에 꼭 필요한 자료도 준비되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김치 담그기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한국 요리 문화를 체험하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 모두 만족해 했다. 이날 모두가 김치보쌈을 비롯해 떡, 과자 등, 한식을 즐기는 시간도 가졌다.

(취재: 배순신)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지난 6개월간 수집한 15개의 등대에 대해 알려줄 총80여 개 전시품이 펼쳐졌다. 이 전시에 대한 기획 발상은 1년 전으로 실제로 전시회 제작자이자 종합기념박물관 과학부의 부장인 이고리 사마린은 탐사와 고문서 자료 속에서 보낸 20년간 이 주제로 연구해왔으며 이에 대한 학술기사를 쓰고 책으로 출판했다.

'사할린에 체류했던 안톤 체호브는 '강제노역장에서 등대는 자유의 상징이었다. 단 몇 시간이라도 자신을 자유인으로 느끼기 위해 이 일로 자신이 처벌을 받게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수들은 그곳으로 도망쳤다.'

등대는 작가에게만 신비스런 아름다움으로 매혹시킨 것이 아니기에 사할린의 화가들도 자신들의 작품 속에 담긴 등대를 전시회에 출품했다.

"이번 전시회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등대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 수 있도록 꾸몄다. 대도시에서 살기를 싫어하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 이들을 위한 외로운 무인도인 등대는 고향집이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그것들은 저기 떠나면 섬들에 있다."고 이고리 사마린이 말했다.

많은 등대들은 역사적 기념으로서만 아니라 관광 및 건축학적 가치가 있다. 등대는 대단히 복잡한 기술적인 목적물이다. 사할린 지역에 첫 등대는 1864년 강제노역섬의 첫 수도인 두에 러시아 군부대 지역에 건설되었다. 등대는 기름 등불이 설치된 목재탑이었다. 장장 120년간 사할린의 등대들은 러시아인,일본인, 소비에크 기술자들과 건축가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방향 안내와 탐색 신호가 빛을 내는 등대는 사할린에 75개, 쿠릴 열도에 27개가 건설되었다.

Выставк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маяках открылась в музее Победы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Маяк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длинные предметы и оборудова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и курильских маяков, а также фотографии и схемы, позволяющие проследить историю маячного дела и узнать о судьбах людей, посвятивших себя служению ради безопасности тех, кто в море.

Всего в наличии около 80 экспонатов, рассказывающих о полутора десятках маяков, которые собирали последние полгода. Идея возникла год назад.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автор выставки, начальник научного отдела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горь Самарин занимается исследованием этой темы уже два десятка лет, проведенных в экспедициях и архивах. Об этом он писал научные статьи и выпустил книгу.

Антон Чехов, побывавший на Сахалине, писал, что на каторге маяк стал символом свободы, куда убегали заключенные, чтобы хотя бы н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ощутить себя вольными людьми, хотя они и знали, что будут за это серьезно наказаны.

Маяки привлекают своей загадочной красотой не только писателей. Недаром сахалинские художники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выставку картины с их изображением.

— Наша выставка рассчитана на то, чтобы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ее посетят, узнали, насколько сложна наука заставлять светить огонь, насколько много вложено труда, чтобы на нашей земле стояли маяки. Маячники — особая кас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е любят жить в больших городах, для которых одинокие безлюдные острова — дом родной. Мы с вами здесь, а они там — на труднодоступных островах, — сказал Игорь Самарин.

Многие маяки ценны не только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но и как архитектур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яки — это сложные техн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Первый маяк был возведен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области в 1864 году в русском военном посту Дуэ, первой столице каторжного острова. Маяк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деревянную башню, оснащенную масляными горелками. На протяжении 120 лет маяки на островах сооружались русскими, японскими и советскими инженерами и строителями. За это время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о построено 75, а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27 световых маяков, а также светящиеся навигационные и створные знаки.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한국전통음식 소개

배추김치(КИМЧИ)

Ингредиенты.

Состав, вес, кол-во:

- Капуста пекинская-3шт, редька- 14шт, соль- 1/2ст. л, душистый лук- 250g, лук-1шт
- Молотый красный перец-4 половника (1половник=7ст.л), сок месиль(кор.слива)-1,5половника, Чеснока-7ст.л, имбирь-0,5ст.л, посоленный чилим-4ст.л, анчусовый соус-1половник, соль-1ст.л
- вода-4 стакана, соль-3,5стакана
- вода-3 стакана, молотый чабсаль-4ст.л

Процесс приготовления:

1. Не срежьте полностью корень капусты, а только удалите пожелтевшие листья.
2. Разрежьте кочан капусты пополам.
3. Разведите 2 стакана соли на 4 стакана воды, и в этом растворе засолите капусту.
4. переворачивайте капусту, чтобы хорошо засолилась.



5. Посолите солью стебель капусты. Для этого поднимите листья, чтобы соль туда не попала.

6. В последнюю очередь аккуратно сложите капусту и сверху слегка посолите.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осол возьмите 1,5 стакана соли.

7. Через 2 часа капуста засолится. Переверните и еще 4 часа держите в соленой воде. За это время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вернуть капусту 3-4 раза, чтобы она хорошо засолилась.

8. Пока солится капуста, сварите клейстер из чабсаль. На 3 стакана воды разведите 4 столовые ложки чабсаль, поставьте на медленный огонь.

9.Редьку шинкуйте покрупнее и посолите 0,5 столовой ложки соли. Рассол от редьки не выбрасывайте, а воспользуйтесь при изготовлении перцовой пасты.

10. А теперь будем готовить перцовую пасту (приправу).

Мелко нарежьте репчатый лук, добавьте резанный душистый лук размером 3 см. добавьте сваренный клейстер, 4 половника перца и 1.5 половника сока мясиль (сливы).



11. 7 столовых ложек протертого чеснока +0.5 столовой ложки тертого имбиря +тертую редьку +посоленный чилим или посоленную мелкую рыбу (анчоус), все перемешайте и получите перцовую пасту.

12. Если чувствуете, что не хватает соли, то можете еще добавить 1 столовую ложку. В последнюю очередь добавьте сахар. Попробуйте на вкус.

13. Получилась прекрасная перцовая паста

14. После промывания положите капусту так, чтобы вода полностью стекла. Затем аккуратно срежьте корешок капусты. Так как, если изначально полностью срезать корень, то во время засола листья могут отпадат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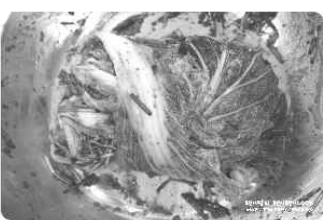
15. В тару положите нарезанную часть капусты и мажьте перцовой приправой каждый листок, начиная со стебля.

16. Достаточно того, что вы намазали стебель, а листья сами заправятся приправой.

17. Так как кимчи цельная, каждую часть нужно аккуратно завернуть последним листком капусты.

18. Можете сначала намазать приправой, а потом завернуть.

Рецепт предоставлен Центром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코르사코브, <한 가정에서> 축제 즐겨

지난 20일(일) 코르사코브에서 제3회 <한 가정에서>민족 간 축제가 펼쳐졌다. 축제 일환으로 오전에 <플라그만>스포츠단지에서 씨름대회가 열렸고 오후에는 <오케안>문화회관에서 한민족 문화체험 활동교실과 공연이 펼쳐졌다.

축제는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코르사코브 구역행정부가 주최했다.

씨름대회는 사할린주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아니와,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코르사코브와 네웰스크 선수 50여명이 참가했다.

한민족 문화체험교실 활동에는 이날 <한국어 예비교원 실습>프로그램으로 사할린에 파견한 여러 한국 대학 학생들과 경력교원(사업 담당 경희대학교)들이 실시했다. 이들의 지도로 코르사코브 청소년들은 한민족 노래개, 복주머니, 연 등을 1시간 동안 즐겨 만들어보았다. 참가자들은 참 좋아했다.

문화체험 시간이 끝나자 바로 공연이 펼쳐졌다.

1부에는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사물놀이팀과 박찬순 이산가족회장(민속춤무대),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무용단(지도 김 예브게니야),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의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 동포가



수인 강팔용, 김웨철과 최 율리야 등의 무대가 관객들에게 한인문화예술을 선보였다.

2부는 <사할린 메리디안>러시아 민속무용단, <바부쉬키냐 페스니>러시아 민요 앙상블, 여러 예술단체와 가수들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이날 러시아 민요와 춤, 타타르 무용, 우크라이나 노래 등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축제 참가자들을 찌무르 마긴스키 코르사코브 시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이태출(이태준)코르사코브한인회 회장이 환영하며 <한 가정에서> 축



제가 코르사코브시에 대한 시민들의 애향심을 돋우고 또 코르사코브시의 매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동력이 되기를 기원하는 한편, 사할린에서 160여민족이 함께 사이좋게 산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축제의 일환으로 <오케안>문화회관 홀에서 본사 이예식 기자의 <귀환>사진전도 펼쳐졌다.

축제 조직과 참가자 식사 대접에는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노고가 컸다.

한편 <한 가정에서>란 축제 기획은 2017년에 처음 사할린주한인협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현재 이 축제를 홈스크 한인회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취재: 배순신)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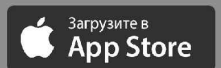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ть приложение

еда.сах.ком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ав. (주필) 배 위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